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21일(일) 오전]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펜을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므로 유의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항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나]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소가 문을 닫는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상황이 아니라 실제 미국과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다. 경제를 필두로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무화 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압박으로 바뀔 거란 얘기다. 접종률 90% 달성을 목표로 이미 정부는 12~17세와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이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내한 심각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특히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혈병, 부정출혈(하혈),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 치주염(잇몸 붓기) 등의 이상 반응과 심지어 가족, 친지, 지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 공간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일관된다. '해당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나 수치가 아니면 명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말하기를 꺼린다. 현재로서는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을 거듭 모니터링할 만큼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백신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전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 보장보

<뒷면에 계속>

다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여성의 높은 출산율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보고 국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통제하였다면,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는 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김 군,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해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언제부터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세대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익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그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지.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달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지.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자가 몰려들 것이지.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네. 참 난감하네.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즘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쁘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지.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지.

[마]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탐닉하기 쉽다. 왜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절제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저급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저급한 본능에 영합하는 출판물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음란한 그림의 전시나 불경스러운 연극공연, 한마디로 말해 부도덕한 것에 대한 모든 유희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잘못된 사회학적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 해악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타인들을 자극하여 내란이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저속한 만화나 신성 모독적인 비방이 신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파괴된다.

[바]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 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예산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73개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2021년 8월 17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 요구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강하며 조화롭고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인류와 사회 전반의 진보를 실현하고 행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 장에 계속>

[사]

인간은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합리성과 보편 의지를 갖는다. 둘째,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인간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감시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 인간은 자기 계발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타인의 재능 발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신을 매개한다고 보는 이전의 가톨릭 교리 대신에 개인이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를 종교개혁 시기 유럽에 전파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 신을 매개하는 사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종파, 길드, 노조, 무역 연합, 시민 단체,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기타 조직 등과 같은 시민과 국가 간의 매개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경제적으로는 사유 재산권이 있는 개인이 벌이는 활동을 토대로 경제를 조직하게 하며 개인을 독과점자가 없는 경쟁 시장의 참여자로 만든다.

[아]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짝 걸어 놓고 /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 한밤중 동네 개 경경 짖어 그 짚신 짙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아이들이여,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취 주고 있지 않으나.

\* 말쿠지: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자]

경제 생활은 엄밀한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을 실제로 화해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사회 전체의 관리 영역에서는 언제나 계획과 자유를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약하고 활기 없는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의 타당성을 자유롭게 인정함으로써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자에게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하고, 노동자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사항, 즉 계획과 자유의 대립을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성한 타협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항의 한 쪽인 계획에만 집중하면 스탈린주의로 이어진다. 자유에만 집중해도 혼돈으로 빠진다. 그런데도 통상적인 선택은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 대신에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대립항들 중 그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30점]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뒷면에 계속>

[문제 III]

두 국가 A, B를 가정하자. <표 1>은 두 국가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자녀수(이하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국가 A는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 B는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당해 출산을 하는 가구에 매년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은 평균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 국가의 평균 자녀수는 매년 일정하게 변한다. 보조금 정책과 시간에 따른 추세 외에 평균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 연도   | 가구당 평균 자녀수 |      |
|------|------------|------|
|      | 국가 A       | 국가 B |
| 2016 | 2.74       | 1.89 |
| 2017 | 2.67       | 1.82 |
| 2018 | 2.6        | 1.75 |
| 2019 | 2.53       | 1.71 |
| 2020 | 2.46       | 1.67 |
| 2021 | 2.39       | 1.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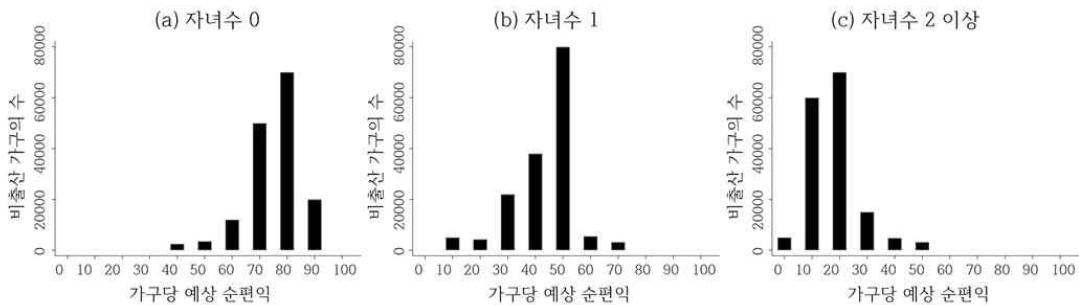
(1) 국가 A, B의 2022년도 예상 평균 자녀수를 각각 구하고,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두 국가의 평균 자녀수의 연도별 추세는 동일하다.)

(2) 국가 B에 대한 아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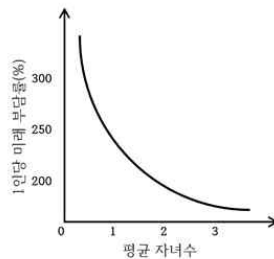
- 국가 B는 미래에 자녀들이 부모 세대 모든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에 자녀에게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를 신경 쓰는 부모에게 비용이 된다.
- 자녀의 미래 1인당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 부담률(이하 1인당 미래 부담률)이 커질수록 부모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 <그림 1>은 가임 가구 중 자녀가 없는 비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각 자녀수에 대한 예상 순편익(편익-비용)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 순편익에 대한 해당 가구의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는 평균 자녀수가 1인당 미래 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 B는 출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국가 B가 부담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그림 1>



<그림 2>

<끝>

## 1. 일반정보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
|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 사회 )계열 / ( I )문항  |

##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 [나]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소가 문을 닫는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서가 있어야 한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 미국과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다. 경제를 필두로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무화 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압박으로 바뀔 거란 얘기다. 접종률 90% 달성을 목표로 이미 정부는 12~17세와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이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내한 심각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특히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혈병, 부정출혈(하혈),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 치주염(잇몸 붓기) 등의 이상 반응과 심지어 가족, 친지, 지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 공간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일관된다. '해당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나 수치가 아니면 명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말하기를 꺼린다. 현재로서는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을 거듭 모니터링할 만큼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백신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 [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 보장보다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

있던 과거에는 여성의 높은 출산율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보고 국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통제하였다면,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는 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김 군,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이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네.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네.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가가 몰려들 것이네.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즈음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네.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네.

#### [마]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탐닉하기 쉽다. 왜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절제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국가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참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저급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저급한 본능에 영합하는 출판물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음란한 그림의 전시나 불경스러운 연극공연, 한마디로 말해 부도덕한 것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잘못된 사회학적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 해악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타인들을 자극하여 내란이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저속한 만화나 신성모독적인 비방이 신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파괴된다.

#### [바]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 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철리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예산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73개

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2021년 8월 17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확실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단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 요구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강하며 조화롭고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인류와 사회 전반의 진보를 실현하고 행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 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오전)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1>은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응시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두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5점이나 1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문제 1> (501~600자)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 ~ 400자 미만: 감점 10점

400자 이상 ~ 450자 미만: 감점 5점

650자 이상 ~ 700자 미만: 감점 5점

700자 이상: 감점 1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문제 1>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바]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라],[바]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인 반면, [나],[다],[마]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라],[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다],[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제시문 출처>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자료 | 재구성 및<br>윤문 여부 |
|-------------------------------------|-----------------------------|------------------------|------|---|------|----------------|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육근록 외                       | 동아출판                   | 2019 | 265쪽, 272쪽  | [가]  | ○              |
| 반드시 맞아야 할까... '백신 의무화' 전 생각해 볼 몇 가지 | 이소아                         | 중앙일보                   | 2021 | <a href="https://url.kr/f2blpn">https://url.kr/f2blpn</a> | [나]  | ○              |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 신옥주                         | 저출산고령사<br>회원학회<br>위원칼럼 | 2021 | <a href="https://url.kr/k4hago">https://url.kr/k4hago</a> | [다]  | ○              |
| 고등학교 국어(「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김 군에게)  | 윤영관                         | 미래앤                    | 2018 | 169-170쪽  | [라]  | X              |
| 자유주의                                | 루트비히 폰<br>미제스 지음,<br>이지순 옮김 | 자유기업원                  | 2020 | 98-99쪽  | [마]  | ○              |
| 나라경제                                | 박준석                         | KDI                    | 2021 | 58-60쪽  | [바]  | ○              |

|      |      |              |      |  |     |   |
|------|------|--------------|------|--|-----|---|
|      |      | 경제정보센터       |      |  |     |   |
| 월간중국 | 경제일보 |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 2021 | 8쪽. 원문:<br><a href="https://url.kr/k4hago">https://url.kr/k4hago</a> | [바] | 0 |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가]-[바]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라],[바]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인 반면, [나],[다],[마]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가]는 대규모 환경오염을 경험한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사례이다. [라]는 통일이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한국 시민 전체가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바]는 개별 기업의 전체 인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국의 ‘공동부유’에 관한 설명이다.

반면 [나]는 정부의 백신 의무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됨을 서술하고 있다. [다]는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 정책이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임을 비판하고 그것이 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는 국가가 개인의 세세한 생활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의 자유가 파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85자)

## 1. 일반정보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
|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 사회 )계열 / ( II )문항   |

##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가]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 [나]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소가 문을 닫는다.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서가 있어야 한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 미국과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다. 경제를 필두로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무화 정책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제한과 압박으로 바뀔 거란 얘기다. 접종률 90% 달성을 목표로 이미 정부는 12~17세와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백신 부작용이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내한 심각한 부작용도 여럿이다. 특히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혈병, 부정출혈(하혈),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 치주염(잇몸 붓기) 등의 이상 반응과 심지어 가족, 친지, 지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 공간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반응은 일관된다. '해당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본래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내용이나 수치가 아니면 명확한 판단이나 결론을 말하기를 꺼린다. 현재로서는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을 거듭 모니터링할 만큼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의 대응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백신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 그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 [다]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 보장보다 인구 감소 또는 증대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

있던 과거에는 여성의 높은 출산율이 국가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보고 국가가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통제하였다면, 현재의 저출산 시기에는 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김 군,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겠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고.

나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라고 믿네.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 주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일세.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이만큼 성공했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네.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네. 물론 당장은 부담이 좀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만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가가 몰려들 것이네. 그런데도 세금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그런데 요즈음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통일일 것이네.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역사의식이란 별것 아니네. 이게 역사의식이네.

#### [마]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탐닉하기 쉽다. 왜 국가가 이런 일에도 간섭하면 안 되는가?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절제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국가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참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이 저급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저급한 본능에 영합하는 출판물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음란한 그림의 전시나 불경스러운 연극공연, 한마디로 말해 부도덕한 것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잘못된 사회학적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 해악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타인들을 자극하여 내란이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저속한 만화나 신성모독적인 비방이 신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즉시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가 파괴된다.

#### [바]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 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철리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예산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73개

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2021년 8월 17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확실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단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공동부유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 요구이다.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들이 근면한 노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강하며 조화롭고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인류와 사회 전반의 진보를 실현하고 행복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

인간은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합리성과 보편 의지를 갖는다. 둘째,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인간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외부 감시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 인간은 자기 계발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부여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타인의 재능 발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신을 매개한다고 보는 이전의 가톨릭 교리 대신에 개인이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개신교 교리를 종교개혁 시기 유럽에 전파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 신을 매개하는 사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종파, 길드, 노조, 무역 연합, 시민 단체,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기타 조직 등과 같은 시민과 국가 간의 매개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경제적으로는 사유 재산권이 있는 개인이 벌이는 활동을 토대로 경제를 조직하게 하며 개인을 독과점자가 없는 경쟁 시장의 참여자로 만든다.

[아]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 주고 있지 않느냐.

-----  
\* 말쿠지: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자]

경제 생활은 엄밀한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을 실제로 화해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사회 전체의 관리 영역에서는 언제나 계획과 자유를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약하고 활기 없는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의 타당성을 자유롭게 인정함으로써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자에게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하고, 노동자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영역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사항, 즉 계획과 자유의 대립을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성한 타협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항의 한 쪽인 계획에만 집중하면 스탈린주의로 이어진다. 자유에만 집중해도 혼돈으로 빠진다. 그런 데도 통상적인 선택은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 대신에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대립항들 중 그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오전)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II>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체보다는 전체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다],[마]의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 뿐만 아니라 [가],[라],[바]의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도 구별된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5점이나 1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 <문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1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5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5점

800자 이상: 감점 10점

###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 <문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 [가],[라],[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별 개체보다는 개체가 모여서 구성되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 추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개체가 없는 전체란 있을 수 없으며 전체의 이익과 권리의 추구가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무시하거나 희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체보다는 전체의 중요성을 우선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의 내용 참조)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라],[바]의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다],[마]의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시문 출처>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자료 | 재구성 및<br>윤문 여부 |
|-------------------------------------|-----------------------------|-------------------------|------|--|------|----------------|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육근록 외                       | 동아출판                    | 2019 | 265쪽, 272쪽   | [가]  | ○              |
| 반드시 맞아야 할까... '백신 의무화' 전 생각해 볼 몇 가지 | 이소아                         | 중앙일보                    | 2021 | <a href="https://url.kr/f2blpn">https://url.kr/f2blpn</a>            | [나]  | ○              |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 신옥주                         | 저출산고령사<br>회원위원회<br>위원칼럼 | 2021 | <a href="https://url.kr/k4hago">https://url.kr/k4hago</a>            | [다]  | ○              |
| 고등학교 국어(“통일은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김 군에게) | 윤영관                         | 미래엔                     | 2018 | 169-170쪽   | [라]  | X              |
| 자유주의                                | 루드비히 폰<br>미제스 지음,<br>이지순 옮김 | 자유기업원                   | 2020 | 98-99쪽   | [마]  | ○              |
| 나라경제                                | 박준석                         | KDI<br>경제정보센터           | 2021 | 58-60쪽   | [바]  | ○              |
| 월간중국                                | 경제일보                        | (주)아주뉴스코<br>퍼레이션        | 2021 | 8쪽. 원문:<br><a href="https://url.kr/k4hago">https://url.kr/k4hago</a> | [바]  | ○              |
| 공동체 경제학                             | 스티븐 A.<br>마글린 지음,<br>윤태경 옮김 | 경희대학교<br>출판문화원          | 2020 | 112-113쪽   | [사]  | ○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br>문학(시 『까치밥』)    | 송수권                         | EBS                     | 2021 | 98쪽  | [아]  | X              |
| 작은 것이 아름답다-인간<br>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 E. F. 슈마허<br>지음, 이상호<br>옮김  | 문예출판사                   | 2001 | 326-327쪽   | [자]  | ○              |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II>

(1) [가],[라],[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개체와 전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가],[라],[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별 개체보다는 개체가 모여서 구성되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 추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

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개체보다는 전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라],[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라],[바]의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663자)

(2)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개체와 전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나],[다],[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개체가 없는 전체란 있을 수 없으며 전체의 이익과 권리의 추구가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무시하거나 희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 하에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회 구조의 타파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아]는 까치밥이 '서울 조카아이들'로 상징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전체보다 개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나],[다],[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자]는 사회 전체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도 계획과 자유의 가치 모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다],[마]의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는 개체와 전체 중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695자)

## 1. 일반정보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
|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 사회 )계열 / ( Ⅲ )문항  |

##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개]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러 국제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거론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시간(Earth Hour)'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이란 뜻으로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60분 동안 지구촌 전등을 모두 꺼서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구의 시간은 세계자연보호기금 주도로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의 참여 도시에서 정해진 시각에 소등을 한다.

### [논제 Ⅲ]

두 국가 A, B를 가정하자. <표 1>은 두 국가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자녀수(이하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국가 A는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 B는 평균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당해 출산을 하는 가구에 매년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은 평균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 국가의 평균 자녀수는 매년 일정하게 변한다. 보조금 정책과 시간에 따른 추세 외에 평균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 연도   | 가구당 평균 자녀수 |      |
|------|------------|------|
|      | 국가 A       | 국가 B |
| 2016 | 2.74       | 1.89 |
| 2017 | 2.67       | 1.82 |
| 2018 | 2.6        | 1.75 |
| 2019 | 2.53       | 1.71 |
| 2020 | 2.46       | 1.67 |
| 2021 | 2.39       | 1.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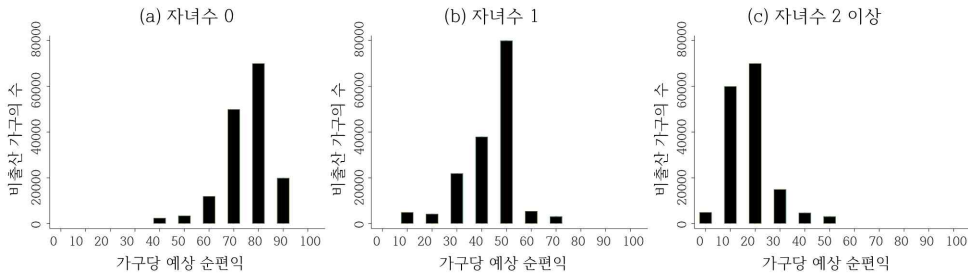
(1) 국가 A, B의 2022년도 예상 평균 자녀수를 각각 구하고, 국가 B의 출산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두 국가의 평균 자녀수의 연도별 추세는 동일하다.)

(2) 국가 B에 대한 아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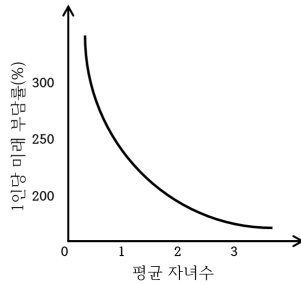
- 국가 B는 미래에 자녀들이 부모 세대 모든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에 자녀에게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를 신경 쓰는 부모에게 비용이 된다.
- 자녀의 미래 1인당 부모 세대에 대한 복지 부담률(이하 1인당 미래 부담률)이 커질수록 부모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 <그림 1>은 가임 가구 중 자녀가 없는 비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각 자녀수에 대한 예상 순편익(편익-비용)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 순편익에 대한 해당 가구의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는 평균 자녀수가 1인당 미래 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 B는 출산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국가 B가 부담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그림 1>



<그림 2>

###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오전)는 개체(개인)와 전체(공동체)의 가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개체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문제 Ⅲ>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표 1>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보조금 정책이 평균 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로 계산해 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감소 추세가 완화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림 1>을 해석하여 개인 순편익으로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상당수의 비출산 가구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결과 미래에 출산 가구 자녀들이 비출산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출산 가구의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즉,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로부터는 감소 추세인 평균 자녀수로 인해 자녀의 미래 부담률 및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담금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서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복지 제도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 <논제 III>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작성)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 <논제 I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국가 A, B의 2022년도 예상 평균 자녀수를 풀이 과정을 통하여 2.32와 1.59로 정확히 계산하였으면 가점 5점
- ② 국가 B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평균 자녀수 1.47을 구한 후 ①에서 구한 1.59와 비교하여 보조금 정책이 예상 평균 자녀수를 0.12만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가점 5점
- ③ ②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록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면 가점 5점
- ④ <그림 1>을 해석하여 개인 순편익으로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상당수의 비출산 가구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고 설명하였으면 가점 5점
- ⑤ ④의 결과, 미래에 출산 가구 자녀들이 비출산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출산 가구의 부모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즉,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면 가점 5점
- ⑥ <그림 2>로부터 감소 추세인 평균 자녀수로 인해 자녀의 미래 부담률 및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파악하고, 그 결과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추론하였으면 가점 5점

⑦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서술하고, 이는 복지 제도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면 가점 10점

<제시문 출처>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자료    | 재구성 및<br>윤문 여부 |
|-----------|-------|------|------|------------|---------|----------------|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육근록 외 | 동아출판 | 2019 | 265쪽, 272쪽 | 제시문 [가] | 0              |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II>

(1) 국가 A, B의 2016년 평균 자녀수를 각각  $K_A$ ,  $K_B$ 라 하고 2016년부터 매년  $T=0, 1, \dots, N$ 의 값을 가진다고 하자. 보조금 효과는  $a(T-2)$ (단,  $T \geq 3$ )로 측정되며 <표 1>로부터  $a=0.03$ 이므로, 국가 A, B의 2022년( $T=6$ ) 예상 평균 자녀수는 각각  $K_A - 0.07T = 2.32$ ,  $K_B - 0.07T + 0.03(T-2) = 1.59$ 이다. 만약 국가 B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예상 평균 자녀수는  $K_B - 0.07T = 1.47$ 이 된다. 따라서 비록 평균 자녀수는 계속 감소하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그 추세가 완화되어, 2022년 평균 자녀수는 0.12( $=1.59 - 1.47$ )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그림 1>은 개인 순편익으로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상당수의 비출산 가구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출산 가구 자녀들이 비출산 가구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그림 2>는 줄어드는 평균 자녀수로 인해 자녀의 미래 부담을 및 부모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고, 이는 복지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비출산 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 제도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 부합한다.